

여수시 어르신 케어주택 '포근휴' 운영

섬 어르신 통원치료 불편 해소 최대 45일 거주 의료돌봄 도움 75세 이상 대상...방문 진료도

여수시가 통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최대 45일간 거주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포근휴'를 본격 운영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주택 '포근휴' 개소식을 지난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포근휴'는 퇴원·퇴소 및 섬 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통원치료를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치료 후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케어안심주택 운영 관련 훈령을 제정했으며, 문수동 도시재생지구내 리모텔링 한 주택 2곳을 '포근휴' 공간으로 지정했다. 또 여수시니어클럽, 문수지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포근휴'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포근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 신청해야 하며, 한 번 입주할 때마다 15일씩 2회 더 연장 가능해 최대 45일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 곳은 남녀 구분해 한 번에 3명씩 6명까지 동시 거주 가능하다. 또 환자 또는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방문 진료, 가사 및 이동지원, 식사, 목욕 등의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단 이같은 서비스는 환자가 신청해야 하며, 기본적인 서비스 이상을 신청할 때는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섬이 많은 여수시로서는 '포근휴' 운영이 어르신이나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섬 어르신들에겐 내 집과 같은 거주 공간이 되어 주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겐 편안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여수형 사업이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살던 곳에서 생애 말까지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여수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7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1,704명에게 3,989건의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여수=김창환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 다음달초까지 군민 맞춤형 심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아로마테라피·재활 테이핑 등 실습 프로그램이다.

총 8회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25명의 보성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아로마테라피와 재활 테이핑 등 실습 위주의 건강 증진 및 관리 요령 등이다. 특히 '아로마테라피' 과정에서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와 피로 해소 방법을 교육하고, '재활 테이핑' 과정에서는 근육과 관절의 통증 완화 및 회복을 돕는 테이핑 기법을 실습한다.

보성군과 순천제일대학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운영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전라남도 RISE 사업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2자녀 이상 가정 문화·복지 혜택 확대

막내 13세때까지 23종 혜택 제공

순천시가 지난 15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막내자녀 출생일에 따라 2자녀와 3자녀로 기준이 달랐던 기존의 지원 방식과 달리 순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막내

자녀가 13세 될 때까지 23여 종의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주어지는 문화·복지 혜택은 ▲순천만 국가정원 무료입장 ▲순천만습지 무료입장 ▲장난감도서관,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연회비 면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혜택을 받

기 위해서는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또 시는 2025년부터는 출생순위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신고한 출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감내 이용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합창단 신임 지휘자와 첫 무대

26일 동악아트홀서 정기연주회

곡성군합창단을 이끌게 된 신임 황유순 지휘자의 첫 무대가 선보인다. 곡성군은 제16회 곡성군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오는 25일 곡성을 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시작(New Start)'이라는 주제로 이번 공연은 황유순 지휘자와 곡성군합창단의 첫 호흡을 맞추는 무대인 만큼 지역민과 음악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특히 황 지휘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합창단의 음악적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연은 '정다운 한국 가곡', '다 함께 부르는 가요',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Coronation Mass K.V.317)'의 순서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장르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다운 한국 가곡으로는 '나 하나 꽃 피어', '바람은 남풍', '봄바람 난 년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 함께 부르는 가요에는 '사랑은 늘 도망가', '고맙소' 등 따뜻하고 친숙한 멜로디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분간 연주되는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는 웅장한 화음과 장엄한 멜로디로 이번 정기연주회의 정점을 찍을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유순 지휘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



곡성합창단 연주회 포스터.

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순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합창 지휘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곡성군 합창단 관계자는 "우리 합창단은 단원간의 친목과 음악적 성장을 도모하며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합창 실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제16회 정기연주회가 곡성군민과 관객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무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합창단은 1999년 창단돼 20여 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6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광양시 내년도 교육환경개선 지원계획 심의 특수학생 보조인력 등 41개 사업 55억 지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열어

광양시가 내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는 김여선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강정일 전라남도의회 의원·안영현 광양시의회의 의원·김정임 광양시의회의원을 비롯한 위원 17명이 참석해 유치원과 초·중·고 87개교의 202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학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의했다. 시는 사전에 광양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그 결과를 202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반영했다.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운영 지원 ▲합리적 교육경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안

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 놀이공간 조성 지원 등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미래교실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며, 미래형 교육모델로 불리는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과 마을 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대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2025년부터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기적성 개발, 창의융합 인재육성, 글로벌 인재육성 등 12개 분야·41개 사업에 55억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공교육 강화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학교급별 교육 변화에 맞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